

회장·노태형/발행인 김관심/편집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8881
 불기 2542년(서기 1998년) 8월 5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교계 방북길 잦아 질듯

조불련, 10명에 초청장 보내와 종단협 교류창구 단일화 추진

불교계 인사의 북한 방문이 가시화되고 있다. 종단협의회,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조국경화통일불교협회, 진각종 대표단 8명이 25~28일 북경에서 잇달아 조

조불련 부위원장 심상열 서기 장 립성준 경양시 위원회부장 등이 나왔다.

초청장을 받아 온 불교계 인사는 모두 10명. 불후위 상임추진위원장 지선 상임집행위원장 효림스님, 유지원 사무총장, 보광사신도회 김기창씨, 경복협 회장 법타 미주본부장 도안스님, 진각종 총리원장 성초, 총무부장 회정, 국제불교연구소 상임연구원 지현정사 외 1명 등이다. 불후위 김기창씨는 무역업자로 '남북농업발전과 협력을 위한 민간단체(농발협)'와의 공조로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단협의회는 이번 초청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종단협의회는 산하기구인 남북교류위원회(위원장 농관)를 통해 남북 교류 창구 단일화를 추진한다는 복안에서 귀추가 주목된다.



○해인사 동향각 바깥기둥에 붙어 있는 흰개미떼와 쫓아낸 흔적. <사진제공: 문화일보>

작은 실천 큰 기쁨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거사님 오늘은 피곤해서 안돼요. 쉬셔야죠" "괜찮습니다. 절 돕는 일인데요..." 학교 일만해도 힘에 겨운데 절에 가 또 일을 하기는 무리라는 L교사의 만류에도 이씨는 "부처님 일이라면 피곤해 코를 골며 떨어져 자다가도 힘이 솟는다"며 호탕한 웃음을 지어 보인다.

이씨는 6년전 불교에 입문해 스님들의 법문태입, 책, 불교방송, 불교계 신문 등으로 공부하면서 행(行)이없는 팔만사천법문은 무가치한 것이



라 생각해 왔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우' 창립에 뜻을 같이하게 됐고, 사후 의화발전용으로 시신기증을 서약한 뒤 건강이 허락하는 날까지 '육신보시'를 아끼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웠다. 그 후 이씨는 최근 이후는 물론 일요일이면 누가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성북동 일대 사찰 구석구석을 돌며 불단을 닦고 쓸고 또 못쓰게 된 의자며 밥상에 못질을 하는 등 작은 일을 도맡아 해 왔다.

또 부부의 정화를 통해 맺은 1급 소아미미 장애인의 차량봉사대로 손과 발이 되기도 하고, 생필품 나눔의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헌혈도 한다. L교사는 이러한 이씨의 자비행에 소리 없는 박수를 보낸다. 그러면서 어디 어려운 절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이씨에게 전한다. 물론 그 소식을 듣기가 무섭게 이씨가 달려가 굶은 일들을 척척해 주고 돌아 온다.

이씨의 이같은 작은 실천은 "나를 낮추고 남을 존경하면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그런 불자가 되고 싶다"는 이씨의 간절한 서원과 함께 주위 동료들 뿐만 아니라 아들 딸에게도 소리없는 인생의 가르침으로 힘이 되고 있다.

(이영자 명예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nia.com

“북 국수공장 잘 돌아 갑니다”

평북한 미주본부장 도안스님이 7월21일 북한을 방문, 시리원 국수공장 운영을 점검하고 2차 지원물품을 전달했다. 도안스님은 25일 귀국길에 북경에서 법타스님을 만나 '경강국수 공장은 하루 2톤의 일가루를 이용해 7천7백 그릇의 국수를 생산해 시리원 일대의 유치원, 학교, 병원, 성불사신도회, 지역주민 등에게 배급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도필선 기자>

현대불교 부다피아 정보센터 정통부 지원단체로 선정

5억9천여만원 용자 5억9천6백만원의 용자지원을 받게된다. 관련사업은 '네트워크, DB, 검색시스템 기술 및 CD-ROM 매체를 이용한 불교정보 문화상품화'와 '현대불교신문 정보센터 Y2K 대응방안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등이다. 임연태 기자 (ytlim@buddhania.com)

여름휴가로 다음주 신문칩니다
 186호 신문 8월19일자로 발간됩니다

해인사에 흰개미 '주의보'

목조 건축물의 천적...팔만대장경·장경판전 훼손 우려

흰개미떼가 해인사를 돌아다니고 있다.

해인사(주지 보광) 응향각과 사운당에 목조문화재의 천적 흰개미가 출현,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의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

해인사는 지난 4월 응향각과 사운당에서 흰개미를 발견해 문화재해충 방제전문업체인 한국방역산업주식회사에 조사를 의뢰, 그 결과를 6월중순 문화

재관리국에 보고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조유전)가 해인사의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응향각(주지실)과 사운당(종무소)에서 흰개미 서식 흔적이 확인됐다.

한국방역산업주식회사와 문화재연구소 한성희전문위원의 조사에서도 응향각에서 흰개미의 서식지와 피해흔적, 흰개미가 때지어 나는 군비행상 등이 확인됐으며 사운당에서도 마한

가지로 흰개미의 피해흔적이 발견됐다.

이에따라 해인사측은 세계문화유산인 장경판전으로 흰개미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문화재연구소와 함께 흰개미 방제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작년부터 2년 계획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장경판전은 현재 동·서 사간고의 보수를 마쳤고 대적광전 바로 뒤에 위치한 수다라전의 기와와 서까래를 보수 중이다. 수다라전의 경관은 25평 규모의 조립식 패널 가건물로 옮겨 보관하고 있다.

수다라전은 흰개미가 발견된 응향각과 불과 20~3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흰개미가 옮겨올 경우 훼손이 우려된다. 장경판전의 보수는 법보전을 마지막으로 내년에 마칠 예정이다. <관련기사 3면>

이윤호·강지연 기자 (jygang@buddhania.com)

산중총회법 공청회 8월 26일 열린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설경)가 개최하는 '산중총회법' 관련 교구본사 주지 후보자 직선제에 관한 공청회가 8월 26일 오후1시 조계사문화회관에서 열린다.

공청회에서는 법등스님(총회부의장)과 영운스님(전조계종 기획실장), 이은은(중앙일보종교전문기자)씨와 손영재(열린사회연구소장)씨가 각각 주제 발표를 한다. 임연태 기자

"연등축제를 서울의 축제로" 고건시장 밝혀

부처님 오신날 연등축제가 서울의 문화축제로 지정된다. 고건 서울시장은 7월30일 불교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화관광부는 고시장의 연등축제의 지역문화축제화 구상에 대해 "지정 요청을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불총림 백양사 무차선회 개최

고불총림 백양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무차선회는 86년만에 새롭게 복원되는 뜻깊은 불사입니다.

무차선회란 지위가 높고 낮음, 권력이 있고 없음, 재산이 많고 적음에 상관하지 않고 누구나 평등하게 법을 논하는 법회를 말합니다.

서운 큰스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지는 이번 행사는 한국 불교가 조사선의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국내외 학자들에게 조사선의 종지를 정확히 알리며, 과학 문명의 극대화로 정신적 위기에 처한 인류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열립니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인류에게 깨우침을 전해 줄 고불총림 무차선회에 많은 불자들이 참석하시어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 | | | | | | | |
|---|--|---|--|--|---|---|
| <h4>古佛叢林 無遮禪會</h4> <p>고불총림 백양사
 전화 0685-92-7502, 92-4603
 팩스 0685-92-2081</p> | <h4>한국고승대법회</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8년 8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제1차 큰스님(조계종 원로회의 회장) 1998년 8월 18일(화) 오후 2시 서운 큰스님(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1998년 8월 18일(화) 오후 3시 30분 진계 큰스님(백운정사 금교신원 조실) 1998년 8월 19일(수) 오전 10시 서운 큰스님(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1998년 8월 20일(목) 오전 8시 서운 큰스님(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 <h4>한국신학술대회</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1998년 8월 19일(수)~22일(토) 장기 학자 한국, 일본, 미국, 영국, 스위스 학자 15명 참가 분과별 발표 주제 동북 아시아의 조사선 전통 여러 불교 사상 전통에서 본 불성에 관한 견해 한국 신불교 전통에서 본 불교적 깨우침에 대한 이해 신불교의 현대적 의미 | <h4>캐달을 위한 신학포럼</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1998년 9월 18일(화)~22일(토) 4박5일 내용 한국신 국제학술회의 정례, 참신 수행, 선종사 강의 등 장기 자격 20세~60세 남녀 100명(선착순 종교 무관) 장기/7만원 | <h4>문선사 사간관</h4> <p>현재 생존해 계신 서운, 법당, 진계 큰스님과 사간관으로 사간관이 박보하씨의 직용 40점이 선보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차 일시/1998년 8월 10일(월)~16일(일) 장소/상설동 현대박물관 미술관 (02-3449-6508) 2차 일시/1998년 8월 17일(월)~23일(일) 장소/백암사 고불미술관 (0685-92-7502) 3차 일시/1998년 8월 24일(월)~30일(일) 장소/부산 송하 갤러리 (051-752-5289) | <h4>인터넷 중계</h4> <p>한국고승대법회와 한국신 국제학술대회는 비영리단체로 운영을 하고 있어 창선 수행을 위한 생중계는 생중계입니다 또한 큰스님 사간관도 인터넷을 통해 전시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7월 10일~8월 31일 주소/http://india.andranet.net/kobu/ | <h4>후원금 모집합니다</h4> <p>고불총림 무차선회는 98년 큰스님들을 원로회의로서 기보정할 때이고, 세속적인 불교 학회를 만나 법을 논하여 창선 수행을 위한 생중계는 생중계입니다 또한 큰스님 사간관도 인터넷을 통해 전시합니다 또한 큰스님 사간관도 인터넷을 통해 전시합니다</p> |
|---|--|---|--|--|---|---|